

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한대성*, 정민예**, 유은영**, 정보인**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작업치료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의 대상은 현재 임상에서 작업치료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우편과 직접 설문지 방법으로 설문지 138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요인은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부적절한 보상',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으로 9개 하위요인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낄 때'가 3.78로 가장 높았고, '학력에 따라 대우가 다를 때'가 2.28로 가장 낮았다. 나이, 급여, 직업종사기간, 교육 정도 등이 스트레스의 각 요인과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사에게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고, 여러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지를 통하여 작업치료사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각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작업치료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한 전반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스트레스 요인, 작업치료사, 직무 스트레스

I. 서 론

병원 근로자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정진주, 2002). 즉 구성원들의 이질적 구성과 의료 기관만이 갖는 의료와 행정의 이원적 명령구조로 인한 갈등,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영기법,

의료 분쟁의 증가, 의료기관 간의 경쟁심화 등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종욱, 서영준과 박하영, 1996). Cherniss (1980)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 사회사업가, 간호사, 교사, 부모, 작업치료사와 같은 대인서비스직업(human service profession)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호사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의 질을 낮게 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간호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허혜경, 1982).

작업 관련성 스트레스는 개인이 상황이나 환경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일의 요구도가 높고 통제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Karasek, 1987). 스트레스는 인간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고 계획된 변화, 개인적 성장,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지만(이경숙, 1983),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인간을 소진 상태에 빠지게 한다(Freudenberger, 1977). Bailey(1990)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작업치료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 임신과 육아, 이사, 과도한 문서업무, 승진이나 높은 봉급에 대한 욕구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요인(조명, 소음, 온도, 사무실 설계, 사회적 밀도 등), 조직 관련요인(직업 요건, 조직구조, 조직 풍토, 경력 발달, 집단 갈등 등), 직무 관련요인(과제 특성, 기술, 역할 갈등, 의사결정참여 등), 개인 관련요인(A형 행동, 욕구 및 가치, 통제 소재, 능력 및 경험 등), 조직 외 관련 요인(가족, 이주,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이종목과 박한기, 1988). 이와 더불어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치료 행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자세적 요인, 사회심리학적 부담요인, 그리고 생체 역학적 요인들로 그 업무가 이루어져 있다(김강운, 안선희와 최호춘, 2004).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통증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김경모(2005)의 연구에서도 근골격계 부담자세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었다. Wressle과 Oeberg(1998)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통증) 및 심리적 증상들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Sweeney, Nichols과 Kline(1991)은 연구에서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작업치료사의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하여 간호사(김매자와 구미옥, 1984; 이경진, 2000), 물리치료사(이충휘, 1990), 의무기록사(최은미와 김영훈, 2003), 치과 위생사(허희영, 오정숙, 성진효와 김동기, 2002) 등 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국내에서의 작

업치료사에 대한 연구는 직무만족도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권정아, 2005)만 있었을 뿐 아직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작업치료사는 회원 수가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관련 직무 스트레스 측정 척도를 참고하여 작업치료사의 직업적 특성에 맞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 대한 조사를 하여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임상에서 작업치료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방법

대한 작업치료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05년 11월 4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한 설문지 220부를 배포하여 185부(84.1%)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47부를 제외한 138부(74.6%)를 분석하였다.

3. 조사 도구

일반적 특성으로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고, 업무관련특성으로 직업형태, 급여수준, 직업종사기간, 치료대상, 일일 환자수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는 김매자와 구미옥(1984)이 개발한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주 모델로 삼아 작업치료사의 업무와 관련된 문항 44개를 업무에 맞게 수정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아주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리커트(Likert) 형태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설문지의 각 문항을 부호화(coding)한 후, 윈도우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을 빈도 분석하였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여자 94명(68.1%), 남자 44명(31.9%)이었으며, 연령은 25-29세가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28.17세였다. 교육수준은 4년제 졸업이 69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졸업 39명(28.3%), 석사이상 30명(21.7%)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 102명(73.9%), 기혼 36명(26.1%) 이었다(표 1).

2. 연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을 보면, 직업형태는 정규직 90명(65.2%), 계약직 39명(28.3%), 인턴 9명(6.5%)이었으며, 급여수준은 100만원-150만원 사이가 34명(24.6%), 200만원-250만원 사이가 36명(26.1%), 150만원-200만원 사이가 30명(21.7%) 순이었다.

직업종사기간은 12개월미만 28명(20.3%), 12-36개월미만 41명(29.7%), 36-60개월 미만 36명(26.1%), 60개월 이상 33명(23.9%)이었으며, 치료대상은 성인작업치료 103명(74.6%), 아동작업치료 32명(23.2%), 기타 3명(2.2%) 순이었다. 1일 치료하는 환자 수에는 15-19명이 49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10-14명이 46명(33.3%), 20명 이상이 31명(22.5%)이었으며, 10명 미만은 12명(8.7%)이었다(표 2).

3.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44개의 문항을 회전 요인분석하여 각 하위영역별 요인마다 요인 부하량이 .30이상되는 문항만을 선택하였으며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몇 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총 38문항이 선별되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38개 문항을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관계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8)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44	31.9
	여자	94	68.1
연령	20~24	41	29.7
	25~29	62	44.9
	30~34	24	17.4
	35세 이상	11	8.0
교육수준	전문대 졸	39	28.3
	4년제 졸업	69	50.0
	석사이상	30	21.7
결혼상태	미혼	102	73.9
	기혼	36	26.1

표 2. 연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N=138)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직업형태	정규직	90	65.2
	계약직	39	28.3
	인턴	9	6.5
급여수준	100미만	18	13.0
	100이상~150미만	34	24.6
	150이상~200미만	30	21.7
	200이상~250미만	36	26.1
	250이상~300미만	10	7.2
	300이상	10	7.2
직업종사기간	12개월 미만	28	20.3
	12~36개월 미만	41	29.7
	36~60개월 미만	36	26.1
	60개월 이상	33	23.9
치료대상	성인작업치료	103	74.6
	아동작업치료	32	23.2
	기타	3	2.2
일일환자수	10명 미만	12	8.7
	10~14명	46	33.3
	15~19명	49	35.5
	20명 이상	31	22.5
근무기관형태	종합병원	94	68.1
	병원	44	31.9

및 업무상 갈등',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부적절한 보상',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의 9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38문항 중 14개 문항이 평균값 3점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스트레스 수준은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낄 때'가 3.78로 가장 높았고, '학력에 따라 대우가 다를 때'가 2.28로 가장 낮았다.

신뢰도를 검정해본 결과,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649~.919 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37 으로 높았다(표 3).

4.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연구대상자의 특성과의 상관관계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에서 급여와 직업종사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에서는 나이, 교육정도, 급여수준, 직업종사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적절한 대우'에서는 급여와 직업종사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나이가 많아지고 급여수준과 직업종사기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대인관계상의 문제, 대우 문제 및 의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스트레스 요인과 연구

표 3. 직무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Factor loading	Mean(SD)
요인 1. 업무량 과중 (Cronbach's alpha : .649)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낄 때	.604	3.78(.589)
근무 중 중환자(severe case)가 있을 때	.625	3.49(.848)
업무량이 과중할 때	.437	3.59(.752)
환자가 치료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때	.609	3.57(.988)
요인 2.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Cronbach's alpha : .770)		
타 부서와의 관계가 비협조적, 비합리적일 때	.506	2.81(.851)
자신의 역할이 애매할 때	.663	2.88(.850)
치료업무 외의 잡다한 일까지 책임져야 할 때	.448	3.12(.913)
자신의 역할이 전문적 가치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737	3.04(.947)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에 임하게 될 때	.407	2.78(.944)
요인 3.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Cronbach's alpha : .766)		
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736	3.41(.843)
환자 개개인의 상태파악이 부족할 때	.810	3.13(.762)
적절한 치료기록을 하지 못할 때	.607	3.11(.826)
치료 업무 수행 시 실수나 빼먹은 것을 발견했을 때	.470	2.91(.778)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374	2.49(.785)
요인 4. 대인관계상의 문제 (Cronbach's alpha : .860)		
환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697	2.94(1.086)
보호자(간병인)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745	2.67(.960)
보호자(간병인)로 인하여 치료 업무에 방해가 될 때	.658	2.89(.834)
동료 치료사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606	2.59(1.058)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466	2.72(1.011)
요인 5. 의사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 (Cronbach's alpha : .919)		
함께 일하는 의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709	2.45(.952)
의사로부터 타인 앞에서 비평을 받을 때	.753	2.52(1.222)
의사가 치료사의 역할,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818	2.72(1.151)
의사가 치료사의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 때	.812	2.57(1.067)
지식, 기술면에서 의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745	2.64(.894)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할 때	.436	2.88(.962)

표 3. 직무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계속)

문 항	Factor loading	Mean(SD)
의사가 자신의 업무 및 책임을 전가시킬 때	.697	2.34(.859)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의사의 지시를 수행할 때	.742	2.80(.943)
요인 6.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Cronbach's alpha : .705)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809	3.24(1.022)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환자가 나빠지거나 호전되지 않을 때	.603	3.38(.874)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360	2.67(.914)
요인 7. 부적절한 대우 (Cronbach's alpha : .747)		
동료간에 진급순서가 다를 때	.676	2.31(.965)
학력에 따라 대우가 다를 때	.716	2.28(1.032)
병원 내에서 치료 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304	3.36(1.031)
요인 8. 부적절한 보상(Cronbach's alpha : .765)		
승진의 기회가 적은 것	.488	2.85(1.158)
보수가 타 직종보다 적을 때	.873	3.52(1.135)
하는 일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낄 때	.861	3.55(1.033)
요인 9.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Cronbach's alpha : .779)		
치료실내의 소음이 심할 때	.770	2.60(.909)
치료실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드나들 때	.834	2.99(.959)

대상자의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IV. 고 찰

보건의료 전문직의 하나인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의 의료 재활 및 사회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환자 치료 및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장애인들의 현실 적응과 재활 의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38개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 ‘치료의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부적절한 보상’,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의 9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조사된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은 ‘업무량 과중’,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부적절한 보상’으로 3점(가끔 그렇다)이상의 평균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업무량 과중’요인으로 평균 3.60이었다.

Wressle과 Oeberg(1998)는 스웨덴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Sweeney, Nichols과 Kline(1993)은 영국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설문을 통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의 4가지 요인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설명하였다. 두 연구 모두 Sweeney 등(1993)이 개발한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49문

표 4.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연구대상자 특성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 특성				
		나이	교육정도	급여	직업종사기간	일일환자수
직 무 스트레스 요인	1	.079	.020	.098	.026	-.055
	2	.138	.133	.155*	.164*	.054
	3	.109	.022	-.024	.057	-.024
	4	.250**	.209**	.242**	.165*	.086
	5	.264**	.145*	.149*	.215**	.047
	6	.135	.000	.100	.154*	.108
	7	.168*	.019	.208**	.208**	-.021
	8	.041	.061	.197*	.035	.115
	9	.111	-.067	.039	.129	.010

*p<.05, **p<.01

- 1 : 업무량 과중
- 2 :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 3 :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 4 : 대인관계상의 문제
- 5 : 의사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
- 6 :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 7 : 부적절한 대우
- 8 : 부적절한 보상
- 9 :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항으로 ‘스트레스 원인이 아님(1점)’부터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임(6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리커트 (Likert) 형태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4점 이상일 경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Wressle과 Oeberg(1998)의 연구에서는 ‘자원과 요구’요인에 해당하는 2문항에서만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과 요구’요인은 본 연구의 ‘업무량 과중’요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도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요인과 정도의 차이는 각 나라마다 작업치료사의 근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더 세분화되어 구분되었고 여러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문항 중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낄 때’가 3.78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학력에 따라 대우

가 다를 때’가 2.28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작업치료사의 업무가 신체적인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3년제와 4년제, 석사이상의 학력에도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나이가 많아지고 직업 종사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상의 문제’, ‘부적절한 대우’, ‘의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급여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대우’와 ‘부적절한 보상’ 영역에서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써 작업치료사가 전문인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Leonard & Corr, 1988; Wressle & Oeberg, 1998) 에서도 보수가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Wressle과 Oeberg(1998)가 스웨덴의 작업치료사에 대해

보고한 연구에서도 ‘치료계획이나 평가 시간의 부족’, ‘제한 시간안에 너무 많은 업무량’, ‘전문직으로서의 가치’, ‘낮은 급여’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한편, Wressle과 Oeberg(1998)는 연구에서 통증에 관해서도 보고하고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업무특성상 환자를 직접 이동하고, 움직임을 습득하게 하는 등 많은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인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herniss(1980)는 작업치료사가 간호사보다는 신체적 증상의 발생이 높지 않고, 대신 정신적인 노력을 요하며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목과 허리의 긴장이 증가하고 두통이나 위장 장애 등을 겪기도 하며,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순환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인 증상에 대하여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적인 증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직업종사기간 5년 미만의 치료사가 대부분이었으며, 특정한 근무부서 및 치료대상 및 업무특성에 따라 변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통증과 신체적 증상은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 및 시간, 작업치료사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증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지침을 더욱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설문지는 타 직종 또는 보건의료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작업치료사에 적용하여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설문지이기 때문에 병원 및 의료원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학교 및 장애아동 어린이 집과 같은 병원이외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에게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작업치료사의 고유의 업무 특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고,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38개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부적절한 보상’,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의 9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4개 요인에서 평균값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지고 직업 종사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상의 문제, 부적절한 대우, 의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급여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대우와 부적절한 보상 영역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작업치료사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진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각 개인은 이러한 관련요인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으로 조절될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는 직장에서의 외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작업치료사 개인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신체적 증상과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한 전반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종욱, 서영준, 박하영. (1996).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병원종사자들의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9(2), 295-310.
- 권정아. (2005). *작업치료사의 직무 만족도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강윤, 안선희, 최호춘. (2004).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평가 - 운동치료를 중심으로. *대한산업위생학회지*, 14(2), 144-154.
- 김경모. (2005).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통증과 직무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매자, 구미옥. (1984). 간호사의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4(2), 18-37.
- 이경숙. (1983).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경진. (2000).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이종목, 박한기. (1988). 직무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1). *대한심리학회지*, 4(1), 241-262.
- 이충휘. (1990).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1), 65-74.
- 정진주. (2002). 병원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현황과 요인 분석. *한국환경위생학회지*, 28(3), 72-76.
- 최은미, 김영훈. (2003). 의무기록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 *한국병원경영학회지*, 8(3), 72-91.
- 허희영, 오정숙, 성진효, 김동기. (2002). 지역사회 구강진료기관 치위생사 집단의 직무만족에 관한 조사. *구강생물학연구*, 26(2), 259-275.
- 허혜경. (1982). 임상간호원의 이직반응에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Bailey, D. M. (1990). Reasons for attrition from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4, 23-29.
- Cherniss, C. (1980). *Staff Burnout. Job stress in Human servic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Inc.
- Freudenberger, H. (1977). Burn-out: The organizational menace.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31, 26-27.
- Karasek, R. (1987). Krav/kontroll-modellen (Red). In H. Leymann & L. Svensson(Eds.), *Forskning for framtidens arbetsliv*. Stockholm: Bokforlaget Prisma.
- Leonard, C., & Corr, S. (1988).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Basic Grade Occupational Therapists.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257-262.
- Sweeney, G. M., Nichols, K. A., & Kline, P. (1991). Factors contributing to work-related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s: Results from a pilot study.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4, 284-288.
- Sweeney, G. M., Nichols, K. A., & Kline, P. (1993). Job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y: An examination of causative factors.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 89-93.
- Wressle, E., & Oeberg, B. (1998). Work-Related Stres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 in Sweden.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467-472.

Abstract

The Factors of Work-Related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Korean Hospitals

Han, Dae-Sung*, M.Sc., O.T., Jung, Min-Ye**, Ph.D., O.T.,
Yoo, Eun-Young**, Ph.D., O.T., Chung, Bo-In**, Ph.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ju Christia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investigates work-related stress and the factors affecting it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Methods : All of the subjects are current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with more than 6 months of work experience. Using an acceptable 138 survey responses,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work-related stress.

Results : Through a factor analysis from 38 questions of the survey, the results show 9 main work-related stresses: heavy duties, conflicts regarding the therapist's professional rol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problems in personal relationships, disagreements with doctors, limitations of the medical system, inappropriate treatment, inappropriate salary, and an inappropriate physical environment.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s work-related stress and its factors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The results may contribute in developing an evaluation kit to measure their work-related stres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study more specific work-related stress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ist, Stress Factor, Work-related Stress